

“尹, 이태원 참사에 특정세력 범죄·좌파언론 인파 유도”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파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정 세력에 의한 유도 및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의장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추가로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날 28일 페이스북에 “당시 저는 원내1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수시로 만났다”며 “이번에 논란이 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매우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5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두 분이 함께 참석한 후 오전 9시 15분경부터 30~35분가량 따로 만나서 나눴다”며 김 전 의장에게 듣고 기

민주 박홍근 의원 “김 전 의장에 들은 내용 메모장에 남아”...尹 발언 추가 공개

“극우 유투버 음모론으로 국정 운영 이뤄졌다는 것은 충격적...尹, 직접 해명해야”

록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딱거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불거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라고 김 전 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또 “자신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호텔에서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면서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장관을 사퇴 시키면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죄과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뒤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무고한 150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대통령이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말을 내뱉을 거라고는 처음엔 끈이론대로 믿기가 어려웠다”면서도 “김 전 의장이 평소 입이 매우 무겁고, 없는 말을 지어낼 분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의정활동을 같이 해본 사람은 다 알기에 제 메모

를 확신해 왔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책임 때문에 수차례 사실관계를 검증했을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실린 내용을 이밖에 다시 확인하니 이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유투브에 심취해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며 “국정 운영이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극우 유투버의 음모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대통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니, 어두운 골목길에서 때 강도를 만난 것보다 더 끔찍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남의 입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과 독대해 나눈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관계기관 회의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열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도의회 운영위원장 윤수봉 의원 확정

“10분 대기조 역할 충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날 28일 제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에 윤수봉(원주1,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윤수봉 운영위원장은 이날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 그리고 조직권 확보 등과 같이 지금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발전이 이뤄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완성과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전국 시·도의회와 중지를 모아 가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의회 문턱이 낮도록 드나들며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10분 대기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만호 기자

취임 2년 맞은 김관영 도지사

“도민 삶 위해 심기일전”

“성과에 안주하는 것 보다 앞으로의 계획에 집중”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2주년이 되



고 2주년이 되며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심기일전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날 28일 간부회의에서 “힘 없이 달려온 간부공무원과 청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년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어 “백년대계의 목표 아래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도전 경쟁의 자세로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기 위해 심기일전하자”고 간부공무원을 격려했다.

또한, 지난 20일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늦게 신청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며, “과격적인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기회발전 특구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 바이오 등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조직을 쇠신하고 속도감 있는 도정운영을 위해 한발 빠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라며,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도정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이만호 기자

“재해복구에 적당히는 없다”

민주 한병도 의원, 익산 호우 피해 복구 현장점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은 지난날 28일,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를 찾아 재해복구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한 의원은 용안면 소재 연동제수문, 망성면 청리배수펌프장 등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수리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재해복구에 적당히는 없다”며 “재해복구가 곧 재해예방인 만큼 여름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익산은 지난해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복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56개소 중 42개소에 총사업비 283억원이 투입, 현재 32개소의 복구가 완료되었고 9개소가 공사 중이다. 나머지 1개소 사업의 경우도 공사 발주에 착공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난날 28일 진행된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임식에 참석한 의원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이 부여한 사명 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이임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날 28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국주영은 의장 이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주 의장은 “2년 전 코로나의 재확산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반기 의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다했다”라고 운을 뗀 뒤 “대과 임이 전반기 의장을 마무리한 것은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회 안에서는 조직개편과 도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을, 밖으로는 민간 단체와의 연대·교류를 비롯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는 등 하투하투가 치열했다”며, “직원 여러분과 함께 꿈꿨던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뛰어나고, 이뤄낸 많은 성과의 경험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더 성장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라는

정부의 폭거에 대응해 보여줬던 우리의 결기는 예산의 일부 복원을 이뤄냈다”며, “나아가 전북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커다란 울림이 됐다”고 대표적 성과를 꼽았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간다”며, “도민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멀리 뛰어서 도민의 위상과 권한을 확장하고 지역발전의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사무처는 이날 국주영은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제3기 예결특위 구성... 총 11명

위원장-김성수 의원·부위원장-정종복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날 28일 제41회 임시회에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을 비롯한 11명 의원을 제12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예결 위원은 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정종복 부위원장, 황영석·이정린·오은미·이병도·서난이·김정기·박정희·윤정훈·윤영숙(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회 순)위원 등이다.

이날 선임된 예결위 위원들은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성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종복(더불어민주당, 전주 3)의원을 선출하고, 7월부터 제12대



김성수 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제3기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정읍 검찰청 형사조정위

원을 역임했다. 현재, 세무사 김성수 사무소 운영,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민사조정위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및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결산심사를 통해 계획에 맞게 집행했는지 심사하고 재정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새 윤리특위 구성

위원장에 박정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날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2대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을 제12대 3기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역

할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근거해 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의원의 징계, 자격 및 윤리 심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만호 기자



이기열·김길수·오창숙

남원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남원시의회 이기열·김길수·오창숙 의원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정협의회(회장 이기동)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기열 의원은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남원시 품 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쌀값 하락 극복을 위한 쌀값 정상화 대책 3법 통과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함으로써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갔으며, 김길수 의원은 △노인돌 봉사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한 제언 △남원시 민간임대주택인 풍산누리리안 아파트 사태 해결에 시 차원의 개입을 촉구하며 시민에게 힘을 주었다.

오창숙 의원은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쳤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병철·주상현·김주택

김제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김제시의회 이병철 의원이 지난 2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으며 주상현·김주택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정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병철 의원(죽산, 부랑, 성덕, 진봉, 광활)은 3선 의원으로서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ODA분야의 예산 활용을 통한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 요청(시정질문) 및 지평선쌀 브랜드 육성 정책 개발 촉구(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김제시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농업도시의 발전을 준비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상현 의원(만경, 백산, 공덕, 청하)은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규칙 등을 점검해 소속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김주택 의원(요촌, 교월)은 제9대 김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재선의원으로서 새만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새만금 SOC 예산 복구와 새만금 김제 뚝 찾기에 의정 역량을 쏟아냈다.

/김제=곽도태 기자